**하나의 아시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201321385 경영학과 김상우**

유럽에는 현재 EU라는 조직을 통해 유럽이 각각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집합체로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도 NAFTA라는 체제로 아메리카 대륙의 자유 무역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로써, 서로 협력과 상생보다는 경쟁과 공격을 하며 으르렁 대는 관계로 지내왔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및 EU같은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단체가 생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지어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에게 강연을 들으면서 아시아공동체 이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각 나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업에서 일본대사관에서 오신 강연자와 중국대사관에서 오신 강연자의 강의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분들의 강연을 통해 그 나라들과 한국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 등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나라가 현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알게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사실 아시아공동체라고 하면 한,중,일3개국의 공동체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김용기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ASEAN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이 ASEAN 국가들에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근 삼성이 공장을 중국에서 대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의는 학생들의 견문과 시야를 더 넓혀 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에서 각 나라의 특징 및 현 상황만을 다루지 않고, 국제이주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2명의 강연자들이 다루어 주셨다. 통신기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이것에 대한 현재의 상황 및 현상과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국제적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 나는 아직도 아시아에서 유럽과 미국과 같은 공동체를 달성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동아시아 국가인 한,중,일 간에는 아직까지도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는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는 자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중국은 반미적인 성격을 띈 국가이고, 한국과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공동체론과 같은 수업이 각 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각 국의 사람들이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젠가는 하나의 아시아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 간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저로서는 수업의 이름이 흥미를 유발해서 신청하게 되었고, 흥미가 간 만큼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것 같다. 게다가 이렇게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굉장히 기분이 좋다. 미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일하며 아시아공동체를 이룩하는 데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